

'세습공천 논란' 문희상 아들 문석균, 결국 출마 포기 "선당후사"

기사입력 2020-01-23 16:23 최종수정 2020-01-23 16:53



문석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상임 부위원장이 연설 중. [문석균 예비후보 측 제공=연합뉴스]

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상임 부위원장이 총선 출마를 포기했다.

23일 문 부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"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미련 없이 제 뜻을 접으려고 한다"며 "아쉬움은 남지만 이 또한 제가 감당해야 할 숙명이라고 생각한다"고 밝혔다.

이어 "용기를 잃지 않고 지금부터가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정진하겠다"며 "성원해 준 모든 분, 특히 의정부 시민과 당원 여러분께 감사하고 송구한 마음 표현할 길이 없다"고 덧붙였다.

문 부위원장은 아버지인 문 의장이 여섯 번 당선된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'지역구 세습' 논란과 맞닥뜨렸다.

그러자 이를 의식한 더불어민주당은 의정부갑 지역을 전략공천 대상지에 포함하면서도 경선 지역으로 돌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.

여기에 문 예비후보는 문 의장 취임 직후 자신의 초등학교 자녀들을 국회의장 공관으로 전입시킨

사실도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.

이에 김해영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“부모가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다음 임기에 바로 그 자녀가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”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.

또한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도 22일 문 부위원장 문제와 관련해 “최근 우리 사회에 공정의 가치가 많이 높아져 있어 일단 당의 우려, 국민의 정서를 (문희상) 의장과 당사자에게 전달했다”며 “본인이 현명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”고 말했다.

이지영 기자 lee.jiyoung2@joongang.co.kr

- ▶ 노후경유차 과태료 35만원 피하려면? 먼지알지!
- ▶ 중앙일보 '홈페이지' / '페이스북' 친구추가

©중앙일보(<https://joongang.co.kr>)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

이 기사 주소 <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etc&oid=025&aid=0002970092>
